

목 차

- 편집인 인사말
- 진주시장 축사
- 유네스코 본부 축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축사

논문

- 21세기의 창의도시: 일본의 사례
- 치앙마이 창의 도시화를 위한 지역 전통 지식의 보존과 전파
- 창조도시론의 전개와 한국의 상황
- 농촌차원의 문화공간
- 민속예술의 재생을 통한 문화 창의 산업의 진흥: 신명과 흥이 있는 사람들의 도시, 진주를 기대하며

대담

- 팬데믹 시대의 문화예술 활동 : 과제와 극복방안

창의관광 트렌드

- 목적지 생태계의 지렛대인 창의관광

창의도시 소식 및 활동

- 바르셀루스(포르투갈)
- 수코타이(태국)
- 치앙마이(태국)
- 파두카(미국)
- 샤르자(아랍에미리트)
- 비엘라(이탈리아)

문화유산

- 진주검무

ARTICLES



진주남강유등축제 (진주시 제공)

# 민속예술의 재생을 통한 문화 창의 산업의 진흥 - 신명과 흥이 있는 사람들의 도시, 진주를 기대하며

| 허용호\*

## 초 록

이 글에서 필자가 주력한 것은 민속예술을 중심으로 한 논의였다. 이미 그 방향이 정해진 진주 고유의 정체성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이다. 논의 결과 진주의 민속예술, 그리고 영향을 주고받은 교방예술을 중심으로 전승 패턴을 발견하였다. 대체로 기록에서 시작하여 축제화로 마무리되는 전승 패턴이 나타났으며, 그 전승 패턴의 각 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진주탈춤마당에서 포착된 창의인재들의 존재와 유입의 가능성과 진주남강유등축제에서 찾은 경제적 파생 효과의 증대 가능성의 결합을 통해, 창의도시 진주로의 전환을 예견할 수도 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논의가 진주에서의 창의도시 관련 논의와 실천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한다.

\* 허용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객원교수이다. 그는 2002년에 서강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저서로는 탈춤 (한국문화재단, 2019) 등이 있다.

이메일 : ana84@hanmail.net



## 1. 논의의 방향

이 글의 논제는 ‘민속예술의 재생을 통한 문화 창의 산업의 진흥’이다. 그런데 이 논제는 필자에게는 낯설다. ‘민속예술의 재생’이라는 표현도 낯설고 ‘문화 창의 산업의 진흥’이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낯섬을 넘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문화 창의 산업의 진흥’에 대해서 필자는 조심스럽다. 그 조심스러움의 근거에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상품 수출의 증대와 같은 경제적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창의성의 중요 원천인 문화예술’은 부차적이거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리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현상에 대해 Andy C. Pratt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특색은 무시한 채 눈에 띄는 성공사례의 외적인 요인만 벤치마킹하고, 즉각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관광과 축제에만 역점을 두는 등 지역의 문화를 질적으로 저하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에 집중한 단편적 정책은 지역 내 구성원을 단순히 관광객과 사업가, 그리고 투자자 유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오히려 그들이 지닌 지역에 대한 애정을 반감시키고 지역을 떠나게 만들어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sup>2</sup>

1. 도시재생의 전략으로 활용되는 ‘creative city’는 ‘창조도시’ 혹은 ‘창의도시’로 번역되는 경향으로 나뉜다. ‘creative’를 ‘창조’로 번역하기도 하고 ‘창의’로 번역하기도 하는 경향으로 나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상의 차이는 단지 번역어 자체의 차이로만 그치지 않는다. 전택수의 견해에 따르면, ‘creative’를 창조라 번역할 경우 “이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및 상품의 수출 증대와 같은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창의라 번역할 경우는 “창의성의 중요 원천인 ‘문화예술’에 초점을 둔 것이다. 전택수, 창조와 창의, 그 맥락적 의미의 변천에 관한 소고, 정신문화연구 제36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3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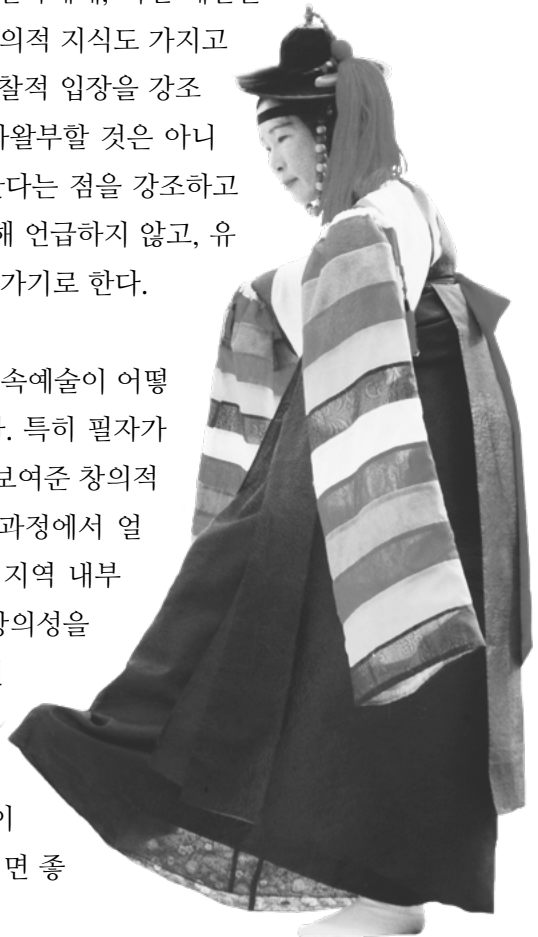
2. Andy C. Pratt, Creative Cities : The Cultural Industries and the Creative Class, Geografisk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2008, p. 16; 정민채, 도시재생 관점에서 본 이천시의 문화정책과 전망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창의 문화연구 4(2), 2015, 36쪽 재인용.



↑ 위 진주삼천포농악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제공)  
↓ 아래 성계옥, 진주검무(사진 : 유근중)

산업의 진흥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이용에 조심스러운 필자에게, 어떤 제안을 기대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더구나 필자는 이 분야에 어떤 창의적 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필자는 산업의 진흥에 대해서는 위에서의 성찰적 입장을 강조하는 정도에서 그치고자 한다. 필자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에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러한 성찰적 접근이나 견해에 대해서 유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필자는 잘 모르는 산업 혹은 경제 분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유념할만한 기존의 성찰적 접근에 동의하고 옹호하며 논제를 좁혀나가기로 한다.

좁혀진 논제는 진주의 민속예술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진주의 민속예술이 어떻게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특히 필자가 주목하려는 것은 진주 민속예술의 존재 양상과 그 전승 과정에서 보여준 창의적 모습들이다. 진주의 민속예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그 전승 과정에서 얼마나 창의적이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어쩌면 진주 지역 내부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것일 수 있다. 진주 민속예술의 가치와 창의성을 외부자의 시선에서 일깨워 보려 하는 것이다. 창의도시와 관련된 이론가들을 소개하고, 필자 나름의 새로운 창의도시론을 내세우기보다는, 필자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혹 놓쳤거나 놓치기 쉬운 대목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일깨움 혹은 지적이 창의도시를 지향하는 진주 사람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 위 진주삼천포농악(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제공)  
↓ 아래 정행금, 진주한량무(진주시민미디어센터 제공)

## 2. 진주 전통예술의 전승 패턴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다.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활동과 혁신적인 산업활동을 연계하여 활성화된 도시로서, 유네스코가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도시 중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sup>3</sup>

인용한 조례 조항을 염두에 둘 때, 진주시는 민속예술을 고유의 도시 정체성(city identities)으로 삼고 있다. 창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 민속예술을 도시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창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둔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sup>4</sup>는 찰스 랜드리(Charles Landly)의 주장에 조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창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도정에서 민속예술에 주목한 진주시의 행보는 일단 근거가 있어 보인다. 민속예술의 도시라 칭할 만하게 진주시에서는 여러 민속예술이 존재하고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제정 2017.03.09. 조례 제1314호).

4. 정민채, 앞의 글, 34쪽.

주지하다시피 진주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주삼천포농악<sup>5</sup>과 진주검무<sup>6</sup>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진주한량무,<sup>7</sup> 진주포구락무,<sup>8</sup> 진주교방굿거리춤,<sup>9</sup> 진주오광대<sup>10</sup> 등의 경상남도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예능의 종목 수로 보자면 진도, 양주, 전주 지역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전통예술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진주인 것이다. 진주는 관 주도의 교방예술과 민간 주도의 민속예술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보존하여 현재까지 이어오는 도시이다.<sup>11</sup> 이 점에서 민속예술을 도시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진주검무, 진주한량무, 진주포구락무, 진주교방굿거리춤 등과 같은 교방예술을 민속예술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 진주에서 전하고 있는 교방예술은 교방청이 폐지된 이후, 지방으로 흩어졌던 관기들이 권변이나 기생조합을 만들어 기방

진주포구락무(사진 : 유근중)



5.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영남형 농악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1966년 6월에 농악으로는 최초로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다른 여러 지역의 농악이 문화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제11-가호 수정 지정되었다. 현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으로 불린다. 진주삼천포농악은 솟대쟁이패의 농악을 계승한 자유로운 형식의 판굿이 특징인 진주농악과, 진풀이가 두드러진 삼천포농악이 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백재민, 진주 민속예술과 창의도시에 대한 생각들 - 창의도시로 나가기 위한 과제, 진주, '민속예술 창의도시'를 꿈꾼다 (2016 진주문화연구소 학예국), 진주문화연구소, 2016, 5쪽 참조.
6. 검무는 본래 궁중무용의 하나였던 것인데, 각 지방의 관아에 전해져서 그 확산이 이루어진 것이다. 진주검무의 경우 춤의 연출 형식, 가락, 칼 쓰는 법 등이 옛 궁중의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1967년에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백재민, 위의 글, 위의 쪽 참조.
7. 한량과 승려가 한 여인을 유혹하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한 무용극이다. 정현석의 교방가요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말기에 널리 유행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10년 이후에 지방에서 성행하였다고 한다. 1979년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지정되었다. 백재민, 같은 글, 같은 쪽 참조.
8. 용알, 공 등으로 불리는 제기처럼 수술이 달린 채구(彩毬)를 포구문(抛毬門)의 풍류안(風流眼)에 던져 넣는 놀이를 춤과 음악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본래 궁중에서 벌어지던 것이 지역 교방으로 퍼지면서 의상, 도구, 절차 등이 변화했다. 진주포구락무의 경우, 민속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진주 지역의 특색 있는 놀이춤이 되었다. 정현석의 교방가요 예 포구락무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과 이윤례의 증언을 바탕으로 복원했다. 이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백재민, 같은 글, 같은 쪽 참조; 강동욱, 진주의 교방예술, 디지털진주문화대전, [http://jin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inju&dataType=01&contents\\_id=GC00403221](http://jin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inju&dataType=01&contents_id=GC00403221) (2017.05.21).
9. 주교방에서 전승되는 굿거리춤이다. 김수악이 한성준, 최완자, 김옥민, 김녹주 등에게 배운 것을 전승한 것이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다. 백재민, 같은 글, 같은 쪽 참조.
10. 진주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가면극이다. 1930년대 이후 단절되었지만 남겨진 채록본과 가면, 그리고 생존 연희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1998년 복원했다. 2003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었다.
11. 백재민, 앞의 글, 4~5쪽.



을 중심으로 추었던 춤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 교방청의 궁중정재나 향악정재의 춤을 이어 받기도 했지만, 지방의 무악(巫樂)과 같은 민속악에 맞추어 추는 민속춤을 가미하기도 했다<sup>12</sup>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진주의 교방예술은 민속예술과 나름의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민속예술, 그리고 민속예술과 영향을 주고받은 교방예술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주 지역은 창의도시를 지향하는 토대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sup>13</sup> 하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다양한 민속예술과 교방예술은 이른바 ‘원형 그대로의 전승’이라는 지향에 얽매어 있는 것들이다. 최근 무형문화재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전형 중심의 전승’이라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 종목의 전승을 강제해 오던 전승의 원칙은 ‘원형 그대로’였다. 이를 엄두에 둔다면, 진주 전통예술의 의의는 과거 시점의 평가일 따름이다. ‘교방예술과 민중예술의 어우러짐’, ‘다양한 교방예술과 민중예술의 존재’ 등의 평가와 의의는 어쩌면 그 실효성이 많이 약화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의의와 평가는 주목하고 계승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적어도 창의도시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제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창의적 작업에 가장 큰 장애는 제약이고 규제이기 때문이다.

1 위 김수악, 진주교방예술(남선희 제공)  
 1 아래 진주교방굿거리춤(사진 : 유근중)



12. 강동욱, 앞의 글.  
 13. 백재민, 앞의 글, 5쪽.



진주의암별제(사진 : 유근중)

그렇다면 민속예술 창의도시라는 진주시의 정체성 설정은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아닌 듯싶다. 진주 지역에서 전통예술을 전승해 오면서 보여주었던 여러 양상이 이러한 필자의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다. 창의도시를 염두에 둘 때, 진주 지역에서의 전통예술 전승 양상이 보여준 흥미로운 사례 몇 가지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다. 전통예술의 전승 과정에서 진주 사람들은 주목할 만한 창의성을 발휘했다. 민속예술과 교방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통예술을 누려 온 지역답게 그 전승 과정에서 새로운 모색의 움직임과 성과 역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 사례를 의암별제와 진주오광대를 실마리로 삼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의암별제(義巖別祭)의 전승 과정을 주목해 보기로 한다. 의암별제는 기생인 여성이 주도하고 연악적(宴樂的) 성격이 강조된 제례 의식이다. 논개의 제사를 지내는 제의적인 성격과 함께, 제사에 가무악이 어우러지는 연악적 성격이 어우러진다. 여성 중심의 제의라는 점, 악가무가 제사에 바쳐진다는 점에서 그 독특함을 찾을 수 있다.<sup>14</sup> 1868년 당시 진주목사 정현석의 주도로 시작된 의암별제는 일제 강점 이후 단절되었다. 해방 이후 의기창렬회라는 단체를 통해 약식으로 그 명맥만 이어오다가, 최순이와 성계옥 등의 노력으로 인해 1992년 복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논개제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15</sup> 이러한 복원과 전승 및 축제로의 확산이 가능해진 이면에는 관련 단체와 인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14. 이와 관련하여 “유교주의가 강한 조선시대에 악(樂)·가(歌)·무(舞) 형식을 갖추고 여성인 기생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선시대에 악가무 형식을 갖춘 제사는 종묘제례나 문묘제례를 제외하고는 의암별제가 유일하다. 의암별제는 진주성(晉州城)과 논개라는 인물이 배경이 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없는 진주 지역만의 독특한 제례 의식으로 진주교방의 기생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는 언급은 참고할 만하다.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진주의 무형문화유산, 국립무형유산원, 2015, 428쪽.

15. 의암별제와 진주논개제의 전승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위의 책, 426~449쪽; 강동욱, 앞의 글; 원숙경, 진주논개제, 디지털진주문화대전, [http://jin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inju&dataType=98&callFunc=goSearch\(\)%3B&keyword=%EC%A7%84%EC%A3%BC%EB%85%BC%EA%B0%9C%EC%A0%9C](http://jin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inju&dataType=98&callFunc=goSearch()%3B&keyword=%EC%A7%84%EC%A3%BC%EB%85%BC%EA%B0%9C%EC%A0%9C)(2017.05.21.).





진주논개제(진주시 제공)

그런데 그 전승과 복원 및 확산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현석의 「교방가요(敎坊歌謠)」라는 책이다. 교방가요는 정현석(鄭顯奭: 1817~1899)이 1872년 음력 2월에 편찬한 책으로, 19세기 중·후반 지방 교방의 기녀들이 이습(肄習)하고 연행했던 공연물들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는 일종의 ‘교방문화보고서’이다.<sup>16</sup> 이 책에서 ‘의암별제가무(義巖別祭歌舞)’라는 관련 기록이 없었으면, 그 복원과 전승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전승 과정에서 단절이 있었음에도 이 기록이 있어 의암별제의 복원이 가능했다. 그리고 복원 이후 진주논개제로의 확장을 통하여 축제로 전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 「교방가요」의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재생산의 기본이 되는 기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중심이 되어 가무악을 바치는 독특한 제례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교방가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교방가요」는 진주 교방예술의 전승을 말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것이다.<sup>17</sup> 「교방가요」에서의 기록을 통하여 진주포구락무와 진주한량무 등이 내실 있는 전승을 할 수 있었다.

16. 성무경, 조선후기 지방 교방의 관변풍류와 악·가·무, 교방가요, 보고서, 2002, 13쪽.

17. 이에 대해 강동욱은 “진주 교방예술이 진주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데는 진주목사 정현석이 지은 교방가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진주의 교방예술은 교방가요를 통해 지금까지 전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기도 한다. 강동욱, 앞의 글.



↑ 위 진주오광대(사진: 유근중)  
↓ 아래 진주오광대(사진: 유근중)

기록에서 축제화로 이어지는 전승의 패턴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의암별제의 경우, 구술과 행위를 통한 전승과 더불어 ‘기록과 기억을 통한 재구 → 복원 → 확산 모색과 축제화’의 전승 양상을 보여준다. 기록에서 비롯되어 축제화로 맺어지는 이 패턴이 흥미로운 것이다. 이 패턴에 따르면, 기록이 창의적 재생산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속예술 창의도시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록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18</sup>

전승 과정에서 기록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진주오광대 역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진주오광대는 1998년 복원되었다. 이 복원이 가능했던 것은 옛 가면의 존재와 관련 연희자의 기억과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진주오광대의 대사와 연행 양상 등을 기록한 채록본의 존재는 진주오광대 복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주오광대의 경우, 1929년 정인섭에 의해 첫 번째 채록본이 발표되었다. 이후에도 1934년에 송석하, 1957년에 최상수, 1961년 이명길 등이 채록본을 발표하였다. 관련 가면의 수집도 이때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진주오광대가 이른 시기부터 그만큼



18. 이와 관련해서 백재민은 “기록에 대한 중요성은 ‘교방가요’라는 단어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 이 책 한 권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이젠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록을 지속하고 남길 수 있는 아카이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백재민, 앞의 글, 9쪽.



진주오광대 탈(사진 : 황병권)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1929년 정인섭에 의해 이루어진 채록 작업은 우리의 가면극의 기록사에 있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구전과 행위로만 전승되던 민속예술인 가면극이 기록으로 남겨진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진주오광대가 온전하게 복원될 수 있었다. 전통예술 혹은 민속예술의 전승과 관련하여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진주오광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진주오광대의 전승 과정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복원의 과정이다. 진주오광대는 다른 가면극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복원 과정을 거쳤다. 1937년 단절된 이래 여러 차례의 복원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98년 복원이 이루어진다.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90년대 후반에 복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원 과정이 주목할 만하다. 진주 지역에서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대대적인 복원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진주오광대가 복원되었다. 진주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운동 차원의 복원 결과물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정한 단체나 인물 중심이 아니라, 함께하는 열린 복원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의암별제와 유사하면서도 구분되는 주목할 만한 점이 진주오광대 복원과 전승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서 비롯하여 축제화로 맺어지는 전승의 패턴 측면에서 보자면, 진주오광대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 섬세하게 정리해 본다면, 진주오광대의 전승 패턴은 ‘구술과 행위를 통한 전승과 더불어 기록과 기억을 통한 재구 → 축제화 속에서의 복원’이라는 양상을 보인다. 진주탈춤한마당이라는 축제 속에서 진주오광대의 복원 과정을 거친 것이다. 축제와 함께 그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점이 의암별제에서 진주논개제로 확산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물론 기록에서 복원을 거쳐 축제화로 맺어지는 일반적인 진주 전통예술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진주오광대의 전승은 복원, 무형문화재 지정 등의 과정을 거치고, 나아



진주탈춤한마당  
(사진 출처 : <http://www.진주탈춤한마당.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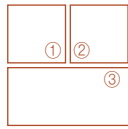
가 진주탈춤한마당이라는 축제로의 확산을 모색하기도 한다. 의암별제가 논개제로 확산 전승 되는 것처럼, 진주오광대 역시 진주탈춤한마당이라는 축제로의 모색을 지향하고 있다. 기록에서 축제화라는 패턴이 여기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주 전통예술의 전승 과정은 ‘기록과 기억을 통한 재구 → 복원 → 확산 모색과 축제화’로 정리할 수 있는 양상을 보인다. 기록에서 비롯하여 축제화로 맺어지는 양상은 ‘전승 패턴’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이는 이른바 원형 그대로의 전승이라는 틀에서 본다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다 거시적으로 전통예술이 존재하는 환경과 문맥을 염두에 두고 살필 때, 이러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근거할 때, 진주의 전통예술은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움을 위한 나름의 모색을 지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전승 패턴의 기록 단계에서 포착된 선각자들의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진주목사로서 진주 전통예술 전승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낸 정현석의 모습이나 전문 조사연구자로서의 정인섭 등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정현석의 경우, 150년을 내다 본 지방 관리였다고 할 수 있다. 복원 단계에서 나타난 소수의 전통예술 전승자나 단체의 노력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한두 사람의 노력이 거대한 축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진주오광대의 복원 과정은 또 다른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함께 하고자 하는 열린 복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전승 패턴의 마지막 단계인 축제화를 통한 확산의 모습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달라진 상황 속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달라진 문맥에서 새로움을 모색하며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3. 진주의 축제에서 찾아낸 창의도시의 실마리

진주의 민속예술, 그리고 민속예술과 영향을 주고받은 교방예술의 전승 패턴은 축제화의 모색으로 맺어지고 있음을 앞에서 확인했다. 이러한 축제화는 진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축제화는 해방 이후 우리의 문화 정책이나 흐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진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개천예술제 때문이다.<sup>19</sup> 국내에서 개천예술제보다 오래된 지역 축제는 없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백제문화제가 1955년에 시작되었고, 신라문화제 역시 196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최초의 근대적 지역 축제를 만들어낸 도시가 진주이다. 그만큼 새로움에 대한 모색과 그 실천성이 두드러졌다.



① ~ ③ 진주개천예술제  
(사진 출처 : <https://www.jinju.go.kr>)



19. 개천예술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했다. 류종목, 개천예술제,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 2006; 한국예총진주지회·개천예술제60년사편찬위원회, 개천예술제60년사, 썬디자인, 2011;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앞의 책.



↑ 진주남강유등축제(사진 출처 : <https://www.jinju.go.kr>)  
 ← 진주남강유등축제(사진 출처 : <https://www.jinju.go.kr>)



해방 이후 개천예술제는 진주 지역의 전통예술을 담아내는 주요한 틀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그 전개 과정에서 또 다른 축제를 길러내는 묘판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55년 제6회 개천예술제에서 유등대회가 생겨났는데,<sup>20</sup> 이 유등대회가 발전하여 2000년부터 진주남강유등축제로 독립한 것이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간형 축제이다. 이미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에 올라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21</sup> 그런데 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 진주를 찾는 관광객은 280만 명이며, 그 경제적 효과가 1600억에 이른다고 한다.<sup>22</sup> 이러한 평가가 사실이라면, 창의도시에서 지향하는 문화산업의 실마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정책 주체와 지역민이 상생 가능한 경제 모델의 틀’을 진주남강유등축제에서 참조할 수 있는 것이다. 관의 지원과 관심으로 만들어진 틀에 민속예술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내실 있게 채워진다면, ‘혁신적인 산업활동’이 그저 이상적인 꿈만은 아닐 듯싶은 것이다.

문제는 혁신적인 산업활동과 연계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활동’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달리 말한다면, 내실 있게 할 창의적인 민속예술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필자는 창의적인 민속예술 활동의 실마리를 그동안 진주 지역에서 보여준 전통예술의 전승 과정에서 찾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주 목사이면서 진주 전통예술 전승의

20.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앞의 책, 503쪽.

21. 김형우, <김형우 기자의 축제 프리즘> ©진주남강유등축제, 스포츠조선, 2016.10.07.

22. 2014년 기준이다. 윤성효, 진주남강유등축제, 올해는 유료화하나?, 오마이뉴스, 2016.08.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1476\(2017.05.2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1476(2017.05.21)).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낸 원형적 창의인재로서의 정현석’, ‘정인섭과 같은 관계 전문가의 선각자적 역할’, ‘소수의 전통예술 전승자와 단체의 헌신적인 노력’, ‘진주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는 복원과 전승의 양상’, ‘특정한 환경이나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축제화의 양상’ 등은 충분히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활동의 좋은 참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적 활동의 양상들이 민속예술 창의도시로서 진주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필자는 진주 탈춤한마당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모습이 진주의 민속예술 창의 도시 지향에 좋은 참조가 되리라 생각한다.

필자가 진주탈춤한마당에서 포착한 실마리는 창의인재와 관련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창의도시화에 있어 창의인력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그러한 창의인재의 모습들을 진주탈춤한마당에서 포착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진주탈춤한마당은 진주의 민속예술을 키워낸 묘판이다. 앞서 살폈듯이 진주오광대가 진주탈춤한마당에서 복원되었고, 최근에는 솟대쟁이놀이가 복원되기도 했다. 동시에 진주탈춤한마당은 다양한 민속예술이 공존하는 축제이기도 했다. 관에서의 별다른 지원 없이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축제에서는 전통적인 탈춤에서부터 새로운 창작탈춤까지, 일인극에서 수백 명이 참여하는 대동놀이까지 함께 어우러진다. 장르의 제약도 거의 없다.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전통예술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탈춤 혹은 탈춤과 연관이 된 연행이면 거의 제한 없이 이 축제판에서 공연되었다.

이렇게 진주탈춤한마당은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가능하게 한 너른 틀이다.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기획되어, 전통적인 민속예술에서 창조적인 창작물까지 공존했다. 학술과 예술이 공존하는 학예굿이라는 창의적 학술대회가 만들어진 것도 진주탈춤한마당에서였다. 학술과 예술이 함께하는 굿판이라는 학예굿에서는 학술적 발표와 토론, 학술 발표와 연관된 연행과 그 연행자와의 대담 등이 함께 어우러진다. ‘공부도 하고 공연도 보고’, 혹은 ‘이론도 듣고 실천도 보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연을 듣고 공부를 보는’ 혹은 ‘이론을 보고 실천을 듣는’ 대안적 학술대회가 학예굿이다.<sup>23</sup>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진주탈춤한마당이 벌어질 때면, 전국에서 민속예술과 관련한 창의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무형문화재 관련 보존회의 전승자들, 민속 또는 전통연희 연구자들, 창작연희를 만드는 예술가들, 전통예술을 공부하는 학생 등이 모여드는 곳이 진주탈춤한마당이다.



23. 허용호, 진주탈춤한마당 ‘학예굿’ 참관기: 공부와 놀이와 굿 -탈춤학예굿, 바람 결 風流 제61호, 민족미학연구소, 2008, 5쪽 참조.



어떤 제약이나 배타성이 없었기에 민속예술 관계자들이 모여들었고, 축제 기간 전통연희와 창작연희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조하며, 우리 연희의 새로운 모습을 도모했다. 민속예술과 관련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공부 모임인 ‘민속극연구회’가 만들어진 것도 진주탈춤한마당 한 귀퉁이에서였다.

그런데 이러한 민속예술 관련 창의인재가 모여든 것은 일시적이었을 따름이다. 진주탈춤한마당이라는 축제 기간에 한정된 일시적인 머무름이었던 것이다. 진주시가 민속예술 창의도시를 지향한다고 할 때, 이 민속예술 관련 창의인재들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해서 머무르게 해야 한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속예술의 전승을 담당할 핵심적인 인력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창의인재들 유입을 유도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창의도시로의 노정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 발굴 → 다른 지역의 창의인재 유입을 유도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음 → 이를 기반으로 정책 주체와 지역민이 상생 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sup>24</sup> 의 세 단계로 대략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른다면, 진주는 ‘민속예술로의 정체성 지향’을 바탕으로 하면서, ‘진주탈춤한마당에서 포착한 창의인재의 존재와 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진주남강유등축제에서 실마리를 찾은 경제적 효과 혹은 경제 활성화의 문제 해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제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와 장애가 존재할 것이다. 예전보다 그 활력이 많이 떨어진 진주탈춤한마당이나, 논란이 많은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진행 등을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나타나고 있었던 창의도시적 요소의 맹아들을 잘 키워낼 때, 진정성 있는 민속예술 창의도시로서의 진주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인재들이 맘 편하게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진주오광대(사진 : 유근중)



24. 정민채, 앞의 글, 37쪽 참조.



진주남강유등축제(사진 출처 : <https://www.jinju.go.kr>)  
| 아래 진주삼천포농악(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제공)

#### 4. 신명과 흥이 넘치는 민속예술 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진주시가 민속예술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창의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은 대략 ‘창의도시에 대한 적절한 이해’, ‘유네스코의 창의도시의 지정 취지와 목적 속에서 진주의 상황에 맞는 아젠다를 세워나가는 일’, ‘진주라는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하기’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sup>25</sup>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관련 분야의 경제적 활성화도 및 지속가능성’<sup>26</sup>이나 ‘지역 및 도시 차원의 해당 분야 창의성 및 관련 기관과 개인의 지위 강화 방안·메커니즘·이니셔티브 등’<sup>27</sup>에 대한 논의와 실천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대처 방안이나 제안을 하지 않았다. 이는 문화 산업이나 창의도시 관련 전문가들이 세심하고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조언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주력한 것은 민속예술을 중심으로 한 논의였다. 이미 그 방향이 정해진 진주 고유의 정체성과 관련한



25. 고원규, “진주 민속예술과 창의도시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논평, 진주, ‘민속예술 창의도시’를 꿈꾼다 (2016 진주문화연구소 학예국), 진주문화연구소, 2016, 11쪽 참조.  
26. 여기서는 산업의 규모,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조치 및 정책, 문화상품에 대한 현재 및 미래생산과 소비에 대한 데이터 등을 요구한다. 산업과의 연관성을 찾거나 의미 있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항목이다. 김태영,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경남의 시사점, 경남발전 131, 경남발전연구원, 2014, 71쪽 참조.  
27. 이 항목은 도시 거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핵심 문화자산이 도시 내 건축물과 기념물 등에 반영되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위의 글, 위의 쪽 참조.

논의를 한 것이다. 논의 결과 진주의 민속예술, 그리고 그 영향을 주고받은 교방예술을 중심으로 그 전승 패턴을 발견하였다. 대체로 기록에서 시작하여 축제화로 마무리되는 전승 패턴이 나타났으며, 그 전승 패턴의 각 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진주탈춤한마당에서 포착된 창의인재들의 존재와 유입의 가능성과 진주남강유등축제로서 찾은 경제적 파생 효과의 증대 가능성의 결합을 통해, 창의도시 진주로의 전환을 예견할 수도 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논의가 진주에서의 창의도시 관련 논의와 실천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한다.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소간의 우려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두 가지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 번째 우려 섞인 의문은 배타성 혹은 폐쇄성과 관련된 것이다.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를 보면 추진위원회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우리 지역 민속예술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 지역’이라는 제한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혹 배타적으로 창의도시를 구성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었고 우려였다. 다행히 조례로 제정되면서 이 대목이 수정되기는 했다. 그런데도 혹 있을지 모르는 배타성이나 폐쇄성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다른 지역 창의인재의 유입을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 것은 기대를 담은 의문이자 우려이다. 진주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내세웠다. 그런데 민속예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창의도시의 사례는 이전에는 흔치 않았다. 현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7개 분야를 보면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가 존재하기는 한다. 이 경우 대체로 공예를 중심으로 창의도시 관련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주와 같이 민속예술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이다. 이 글에서 살폈듯이, 진주의 경우 연행으로서의 민속예술과 축제가 두드러진 도시이다. 연행으로서의 민속예술을 핵심 문화자산으로 삼고, 축제를 부가 문화자산으로 삼고 연계할 만한 하다. 하지만 전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동시에 이 문제는 기대하게 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을 진주 창의도시가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처럼 진주 창의도시의 미래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के끔 만들고 있다. 필자가 진주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 ■ 참고 문헌 ■

-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2017.03.09. 조례 제 1314호).
- 강동욱, 「진주의 교방예술」, 『디지털진주문화대전』, [http://jin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inju&dataType=01&contents\\_id=GC00403221](http://jin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inju&dataType=01&contents_id=GC00403221)(2017.05.21).
- 고원규, 「“진주 민속예술과 창의도시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논평」, 『진주, ‘민속예술 창의도시’를 꿈꾼다』(2016 진주문화연구소 학예곳), 진주문화연구소, 2016.
- 김태영,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경남의 시사점」, 『경남발전』 131, 경남발전연구원, 2014.
- 김형우, 「〈김형우 기자의 축제 프리즘〉 ③진주남강유등축제」, 『스포츠조선』, 2016.10.07.
- 류종목, 「개천예술제」,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 2006.
- 박철홍,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추진”」, 『경남일보』, 2016년 9월 21일.
- 백재민, 「진주 민속예술과 창의도시에 대한 생각들 - 창의도시로 나가기 위한 과제」, 『진주, ‘민속예술 창의도시’를 꿈꾼다』(2016 진주문화연구소 학예곳), 진주문화연구소, 2016.
- 성무경, 「조선후기 지방 교방의 관변풍류와 악·가·무」, 『교방가요』, 보고서, 2002.
- 윤성효, 「진주남강유등축제, 올해는 유료화하나?」, 『오마이뉴스』, 2016.08.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147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1476)(2017.05.21).
- 원숙경, 「진주논개제」, 『디지털진주문화대전』, [http://jin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inju&dataType=98&callFunc=goSearch\(\)%3B&keyword=%EC%A7%84%EC%A3%BC%EB%85%BC%EA%B0%9C%EC%A0%9C](http://jin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inju&dataType=98&callFunc=goSearch()%3B&keyword=%EC%A7%84%EC%A3%BC%EB%85%BC%EA%B0%9C%EC%A0%9C)(2017.05.21).
-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진주의 무형문화유산」, 국립무형유산원, 2015.
- 전택수, 「창조와 창의, 그 맥락적 의미의 변천에 관한 소고」, 『정신문화연구』 제36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정민채, 「도시재생 관점에서 본 이천시의 문화정책과 전망 -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창의 문화연구』 4(2), 2015.
- 한국예총진주시회·개천예술제제60년사편찬위원회, 「개천예술제60년사」, 썬디자인, 2011.
- 허용호, 「진주탈춤한마당 ‘학예곳’ 참관기: 공부와 놀이와 곳 - 탈춤학예곳」, 『바람 걸 風流』 제61호, 민족미학연구소, 2008.